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상반기 8235명 신규채용

광주·전남북 600여명 ...연말 1000명 넘어 작년 웃돌 듯

현대·기아자동차의 호남권 1차 부품 협력업체 60여개 사가 올 상반기 광주, 전남·북지역에서만 600여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협력업체 취업인원까지 포함하면 올 연말에는 지난해 지역에서 채용된 1000여명을 웃도는 규모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18일 올 상반기 1차

부품 협력업체 380여개 사가 대졸 및 고졸 사무직 3776명, 생산직 4459명 등 총 8235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초 집계한 1차 협력사의 연간 고용계획 인원 1만명의 80%를 넘어선 것이며 현대모비스와 현대파워텍 등 현대차그룹 계열의 부품제조사는 제외된 수치다.

이 가운데 광주, 전남·북지역의 1

차 협력사 60여개사는 올 상반기 600여명의 지역 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했다. 실제 협력업체가 모여있는 광주시 광산구 소공공단의 입주기업들은 올 들어 업체 별로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신차개발에 따른 프레스 라인 증설 등으로 올해 15명을 채용했다”며 “광주

공장의 수출량 증대에 따라 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사의 올 상반기 채용규모가 기대 이상이었다면 만큼 연말까지 당초 계획인 1만명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5000여명에 이르는 2·3차 협력업체의 채용 인원까지 포함할 경우 현대·기아차 전체 협력사의 고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기준 자동차부품산업 고용 유발계수가 6.9명(10억원 투자 시 6.9

개의 일자리 창출)임을 감안하면 상반기 채용된 8000여 명은 1조2000억원을 투자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일자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세계시장 판매가 확대되면서 협력업체의 생산량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의 수출 지원 및 해외 동반 진출로 협력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해외 완성차 업체로의 부품 수출이 늘어난 점도 채용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특별기고



이용섭 <국회의원>

광주은행 매각방식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되면서 광주은행에 지역에 환원해 달라는 광주·전남 시민들의 염원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논리를 앞세워 향토은행의 역사적 배경과 지역민들의 희생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 결정이 심히 유감스럽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광주은행이 다시금 총자산 20조원의 건실한 우량은행으로 성장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지역민들의 희생과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영화 추진시에 가장 중시해야 할 대목은 광주은행 설립 배경과 지역민들의 경영정상화 노력이어야 한다.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광주·전남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상공인들에 의해 설립됐다.

진 만큼, 정부의 민영화 3대 원칙인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중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지역금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

없는 향토은행이라도 만들어야 할 마당에, 있는 향토은행을 거대 금융회사나 외국자본에 넘겨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당장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깨지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은 고착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광주은행 매각에 있어 경제적 논리에만 집착해

지역민이 키운 광주은행 향토은행으로 부활해야

지난 40년 동안 가난한 지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금융편의를 제공했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해 온 것은 향토은행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IMF 외환위기 때 광주은행 임직원들은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매진했다.

광주·전남 시민들도 두 차례에 걸쳐 2500억원에 달하는 증자에 참여한 은행 정상화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4379억원의 경제적 손실과 좌절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지역민들은 광주은행이 다시 향토은행으로 환원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광주은행의 광복합민간 경영실적은 은행 스스로의 경영혁신 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지역민들의 희생과 애정도 큰 몫을 했다.

광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4418억원은 그간 배당금 등을 통해 상당부분 회수된 것으로 알려

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의 대응도 지금보다는 더 지혜롭고 냉철해야 한다. 현행법에서 ‘공개경쟁입찰’과 ‘금산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묵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현행법의 원칙을 바꾸면서까지 지방을 배려할 만큼 바근해 정부가 호남에 애정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경남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향토은행의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수용가능한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지역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TF)를 설립해 사모펀드가 인센티브를 갖고 입찰에 나서는 방법이다. 정부 심사기준 마련시 지방은행 육성과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모펀드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현행법의 원칙을 지킬 수 있고 광주·전남은 지역자본으로 광주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향토은행 부활을 위한 상생의 길, 두드러진 열릴 것이다.



홍정희 대인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이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상생협력’ 고맙습니다

대인시장 상인들 롯데백화점에 감사패

광주 대인시장 상인들이 18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월 27일 대인시장과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이후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주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다.

대인시장 상인들 대부분 대형 백화점이 지역 상권을 침체 시킨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백화점측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보면서 현재는 불신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다.

12명의 백화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롯데백화점 ‘지역상생연구회’는 대인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회 고객 맞이 자세, 불만고객 응대방법, 위생관리, 안전관리, 상품진열 및 판매기법 등 백화점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인들이 회의나 각종 모임, 교육을 진행할 적당한

공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백화점 내 교육장과 회의실을 개방하는 한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백화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지난 5월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는 대인시장 상인회와 함께 상가 상인들 대상으로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가졌다.

유통업체가 전통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경우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백화점측의 진정성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시장 상인들 마음을 움직였다고 평가다.

홍정희 대인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은 “백화점측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대인시장에 활기를 주고 있다”며 “대인시장 상인들 대부분 요즘 눈에 띄게 늘어난 손님들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가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민열 롯데백화점 광주지역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중소지원센터, 전경련 감사패 받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로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오주승·사진)가 18일 오전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문단 출범 9주년 기념식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으로 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전남중소기업센터와 전경련은 지난 2012년부터 도내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자문단 상담 협약을 맺고 2년째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경련 자문상담사업은 전남지역

기업과 대기업 CEO 및 전문경영인 출신의 전경련 자문단 전문가를 1대1로 우선해 참가기업이 경영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만 2073명 ...새마을금고 단체헌혈 한국기록 인증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대적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던 새마을금고가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단체헌혈 한국기록달성을 인증받았다. 지난 4월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요청을 체결하고 50일간 펼친 ‘새마을금고 가족 헌혈 캠페인(행복나눔 50일)’에 1326개 새마을금고 1만2073명이 참여한 ‘단일조직·적극최다집포참여·최다인원 헌혈’ 한국기록을 수립해 단체헌혈분야의 신기록을 이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06개 새마을금고 인직원 및 회원 977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최재호기자 lion@



단체헌혈 대한민국 공식기록 인증 50일간 1,326개 새마을금고 참여 12,073명 헌혈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전시회 광주세관 22~23일 유·스퀘어

광주세관(세관장 조훈규)은 22~23일 이틀간 광주 유스퀘어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한우협회 등 10개 민간 생산자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가 전시물품, 장소 등을 협조하고 관세청에 채용된 민간 단속보조요원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전시회 기간동안 “내 물품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원산지 표시 상식 퀴즈, “내 SNS에 공유하기” 등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해 소정의 경품도 지급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편 광주세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원산지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과 계도·홍보활동을 병행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코스피지수 1875.48 (-12.01)	▼ 코스닥지수 541.56 (-0.26)	▼ 금리 (국고채 3년) 2.85% (-0.04)	▲ 원·달러 환율 1126.30원 (+4.70)
--------------------------	------------------------	-----------------------------	----------------------------

잔여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59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92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1억 84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지리산 노블랜드 분양 및 상담 / (주)오천경매
 직통 : 010-3605-5000, T. 구례)781-8828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싸게사, 화염사, 노고단 근접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T. 062)418-9000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문의전화 : 010-9199-7000 010-7171-5382

WWW.MODONG.CO.KR

건축, 토목 공사 자재공급 안내

원 석

A급 재당 6,000원
 B급 재당 5,500원
 C급 재당 4,500원

골 재

보조기층 : 현장직구입
 자갈 : 현장직구입
 개비 온 : m³당 12,000원
 모래 : m³당 12,000원

전 석

A급 : 25t 기준 320,000원
 B급 : 25t 기준 230,000원
 사석 : 25t 기준 190,000원

건치석

공사용 1,300원(개당)
 묘축용 1,300원(개당)

기 타

◎ 자연 조경석 생산
 ◎ 징검다리 주문생산 (010-5388-3666)

판 재

구분	반제품	규격	완제품
생산품목	무판재 16,000원부터 30T (M ² /당)	~ 800 폭	버너 지석연마 잔다듬 혹두기 사구석 경계석
		3만 M ³ 이상 항시보유	

※ 전 품목 현장 상차도기중

(채석장소재) 모동기업사	주소 : (670-853)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 6-1 전화 : (055) 944-5382 / FAX : (055) 944-5381 H-P : 010-7171-5382 modongcokr@nate.com	(판재공장) 모동석재(주)	주소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15 전화 : (055) 943-8946 / FAX : (055) 943-8947 H-P : 010-9171-2117 / 010-8260-0135
---------------	--	----------------	---